

[수교 10년 韓·中] 차이나타운을 건설하자

(대한매일 2002.09.03)

■ “지방에 차이나타운 세워 지역경제 새로운 활력을”

21세기 들어 중국의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화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동자산 2조달러(약 2400조원)가 넘는 거대한 화교자본을 유치하는 창구로서 차이나타운을 본격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보탬이 된다. 일본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의 경우 매년 도쿄 디즈니랜드보다 많은 18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이나타운 건설을 구상한지는 꽤 됐다.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화국가에 포함되고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시행돼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이를 ‘중국특수’로 연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최근 중국을 뒤덮은 ‘한류(韓流)’ 열풍을 국내에 접목시켜 잠재력이 무한한 중국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구 대화동 고양국제종합전시장 부지 2만평에 호텔과 상가, 중국식 공원·거리 등이 들어서면 차이나타운을 세우기로 중국계 자본의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과 지난 4월 합의, 토지개발협약(MOA)을

체결했다.내년 4 월쯤 조성공사를 시작, 2004 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은 당초 서울 상암동 서울디자인미디어센터 부지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했으나 일산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도심 사이에 위치,입지가 상암동에 비해 뛰어나다고 보고 방향을 바꿨다.

부산시는 기존 화교 상권이 형성된 동구 초량동 청관골목을 ‘상해거리’로 지정하고 숙박·쇼핑시설 등을 건립,이곳을 차이나타운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는 이미 68 억원을 들여 이곳에 ‘상해의 문’을 설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고,앞으로 화교 등 민간자본을 포함해 534 억원을 투입,화교학교 인근에 중국인 전용상가와 중국풍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중구 북성·선린동 일대에 형성돼 있는 차이나타운을 본격 개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이곳은 1883 년 제물포항 개항과 더불어 형성된 국내 최초의 차이나타운.이 일대에는 한때 3000 여명의 화교가밀집돼 있었으나 6·25 전쟁을 거쳐 60 년대 들어 화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화되면서 화교들이 동남아 등으로 떠나 현재는 600 여명만이 남아 중국음식점·한의원·중국문화사 등을 운영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시는 이곳 주변에 대 중국 관문인 인천항과 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의 교통요충지인 인천공항이 자리잡아 화교촌이 ‘관광인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6 월 차이나타운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중국거리를 상징하는 대문 형태의 전통 조형물 파이러우(牌樓)와 중국식 가로등 23 개를 설치하고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다.구는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에 화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화교 투자가들과 중국풍
상가 등을 짓는 방안을 논의중이나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차이나타운이 4층 이상 건물을 못짓는
고도제한지역인데다 건폐율 제한(60%)까지 적용받아 화교자본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 건설이 면밀한 준비 없이 발표돼 지자체의 전시성 ‘기획’에
그치는 바람에 민자 유치가 안되고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다.

북제주군은 애월읍 옛 수산유원지 일대를 차이나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10 억원을 투자,중국식 음식점·쇼핑시설을 갖춰 지난 4 월 개관하기로
지난해 12 월 중국 베이징 주황부동산정보유한회사와 합의했으나 중국측이
카지노가 들어올 수 없으면 투자가치가 없다며 난색을 표해 제자리다.홍콩
삼자기업협조총회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일대에 해상 카지노호텔 등을
갖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12 억달러의 투자의향서를 98 년
제출했으나 현행법상의 ‘카지노 불가’로 없던 일로 됐다.

서귀포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한 진시황의 사신인 ‘서불’이 다녀갔다는
정방폭포 인근 서귀동 100 의 2 일대를 2004 년까지 중국전통음식점과
민박촌등이 들어서려는 차이나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다.차이나타운에 우선
‘서불전시관’을 만들어 월드컵 이전에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가 문화재보호구역의 300m 이내에서 건축할 경우
도의허가를 받도록 규정,난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3 월 심재덕 전 시장이 월드컵 홍보를 위해
자매도시인 중국 지난(濟南)시를 방문했을 당시 수원차이나타운 및 공자

사당 건립을 제안했고,지난시측도 협조를 약속했으나 시장이 바뀐 뒤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인천화교협회 장의량(張義亮·62) 사무장은 “생색내기식 차이나타운 개발은 화교뿐 아니라 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당장의 필요에 급급해 무작정 개발에 착수하기보다는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인위적 개발보다 화교들이 이미 몰려 있는 곳부터 자연스럽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종합·정리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양필승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추진위원장/ “차이나타운 한·중 번영에 필수”

양필승(梁必承·45·건국대 사학과) 교수는 차이나타운 건설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학자다.1999년 11월 설립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의 건설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 교수는 30일 “오랜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국의 진정한 공동번영을 위해 차이나타운 건설은 반드시 이뤄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수교 5주년을 맞았던 97년 한 일간지에 차이나타운 건설을 제의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손을 놓지 못했다.국내 차이나타운 논의의 ‘원조’인 셈이다.당시 화교들의 자본을 끌어들이자는 의견도 많았다.그러나 국내 화교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한 선배 학자가 재일교포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다가 화교들로부터 “당신의 조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수민족 권리 운운하느냐.”란 말을 들은 뒤여서 더더욱 그랬다.

그는 우선 화교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섰다. 99년 토지 소유 제한이 철폐된데 이어 마지막 걸림돌인 영주권 확보 문제도 국회 공청회 등 노력을 기울여 지난 6월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서울의 차이나타운 개발은 입지여건 등 어려움 때문에 유보됐지만 투자비가 5억달러에 이르는 고양시 일산 차이나타운 조성의 바탕을 일궜다.

그는 2000년 초 휴직까지 하며 엠차이나타운(주)을 설립했다. 차이나타운을 우선 사이버상에 만들어 한·중 교류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취지에서다. 'm'은 밀레니엄, 멀티미디어, 모바일의 영문 이니셜을 따온 것이다. 이 회사사이트(www.mchinatown.co.kr)는 중국에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기업에는 중국을 겨냥한 수익모델을 선보이겠다는 당찬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국내 연예계 동향을 소개해 한류(韓流) 열풍을 이끈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양국 기업체들을 위한 컨설팅에도 한 몫해 성공적이란 자평이다.

그는 “개혁과 개방은 한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두 바퀴”라고 전제한 뒤 “이제 국내에서 화교들에 대한 실정법상의 차별이 사라져 개혁 토대는 마련된 셈”이라면서 인·허가 문제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행정 불편 해소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당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기사일자: 03-SEP-0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20903005001>